

디지털셋톱박스 업계와의 조찬 간담회 개최

- 디지털셋톱박스(Digital Set-Top Box) 금년 10억불 수출 전망
- 산자부, 디지털셋톱박스산업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년중 산업화 지원센터(테스트 베드) 구축 예정

세계 주요 방송방식을 구현하는 셋톱박스 산업화 지원 센터가 설립돼 가장 강력한 차세대 성장동력인 디지털 TV와 셋톱박스 및 홈네트워크 산업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다.

본회가 산업자원부와 함께 지난달 29일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디지털 셋톱박스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2008년까지 5년간 총 120억원을 들여 해외의 디지털방송 환경 및 시장상황을 그대로 구현한 셋톱박스 산업화 지원센터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이 센터에는 DVB-S, DVB-C, 오픈케이블 등 디지털 방송을 실시중인 각 나라의 디지털방송 방식과 연동될 수 있는 지상파, 케이블, 위성방송 등 다양한 셋톱박스를 시험평가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구축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디지털 셋톱박스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예산이 허락하는 한 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주요 방송방식을 모두 구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현지에서 직접 제품 실험을 하지 않고 수출대상 국가의 방송수신 방송에 맞는 각종 셋톱박스를 지원센터에 마련된 시뮬레이션 환경을 통해 시험·개발할 수 있게된다.

이번 산자부의 셋톱박스 테스트베드 구축에는 서울산업대,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등이 공동으로 참가해 산학연 프로젝트로 진행된다.

서경학 전자부품연구원 선임연구본부장은 “가상적인 테스트베드 환경의 구축은 기업들의 제품 개발 비용을 절감시켜 줄 뿐 아니라 중복투자 문제를 해소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산자부는 우선 올해 정부 18억원, 민간 6억원 등 총 24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기자재 및 재료를 구입할 예정이다.

고정식 산자부 생활산업국장은 “개별기업의 선행연구

및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을 경감하고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셋톱박스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하게 됐다”며 “디지털 셋톱박스의 정확한 통계 집계를 위한 품목분류(HS 코드)를 보다 세분류하는 등 업계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중·일 전자부품시스템 연계사업 급물살

지난달 25일 본회(www.eiak.org)는 중국전자상회(CECC)가 최근 한국(EIAK) 및 일본(JEITA·일본전자정보산업협회)측과 전자부품 시스템 연계사업을 함께 추진할 새로운 팀을 구성하고 2월중 한국에서 열릴 한·일 실무 워킹그룹회의에서 중국의 참여를 공식화하기로 했다.

본회 김성복 부장은 “이달 초 CECC측이 ‘한국·일본 주도로 추진중인 연계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신규 사업팀을 만들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왔다”며 “2월 19일, 20일로 예정된 한일 실무워킹그룹 회의에서 중국의 참여를 알리고 4월중 3국간 업무제휴서(MOU)를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년여 동안 담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한·중·일 3국간 전자부품 시스템 연계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더욱이 최근엔 대만도 정보산업센터(III)를 통해 연계사업 참여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는 4월부터는 이들 국가가 모두 참여한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 차원의 프로젝트로 확대될 전망이다.

본회는 연계사업을 위해 지난해 말 산업자원부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한(www.e-pia.net)·일(www.ecals.org) 양국 사이트간 상호운용성시스템(IOS:InterOperability System) 개발에 착수, 오는 6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통합시스템을 개설할 계획이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통합시스템을 정식 개설, 실질적인 B2B거래를 성사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은 전자부품시스템 연계사업을 위한 첫 단계로 지난해 1월 양국 시스템간 1단계(싱글사인온) 연계를 위한 검색엔진을 설치한 데 이어 7월에 2단계(통합검색) 연계를 위한 실증 테스트를 완료하고 11월에는 부품분류체계표준 및 메시지 전송표준에 합의한 바 있다.

본회, 전자업계 친환경 경영체제 구축 적극 지원

본회(www.eiak.org)가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의 환경규제가 고도화됨에 따라 회원사들의 친환경 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지원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본회는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 경영 교육 및 환경 친화적 공급망 구축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규제 물질에 대한 대체 소재와 친환경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EU역내 폐전자제품 회수 및 재활용 시스템 구축에 나서는 등 선진국 환경규제 움직임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달 예정된 정기총회에서 '친환경 제품 생산'을 올해 슬로건으로 내걸고 업계와 공동 캠페인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본회 최영훈 본부장은 "최근 우리나라 전자업체들의 매출중 70% 가량이 수출인 상황에서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이 잇따라 환경규제를 발표하고 있어 수출에 비상이 걸릴 수 있다"며 "업계가 친환경 제품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범 업계 차원의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회는 특히 대기업의 경우 오래 전부터 환경마인드를 갖고 대응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대비가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 대기업과 협력을 통해 전문가 풀을 만들어 환경대책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정부로부터 청정사업비를 지원받아 환경산업 전문가 풀을 조성하고 교재를 만들어 지역 순회 교육도 마련중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원자재 업체 단계에서부터 유해물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홍식 국제·환경팀장은 "일본 소니의 경우 이미 그린프로큐어먼트제를 실시해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그린제품만 취급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그린파트네제가 실시되는 등 전자제품 조달 프레임워크가 변화하고 있다"며 "해외의 환경규제 관련 법 제정 추이와 정보를 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한 전자업계 애로건의

건설교통부에서 2003년 11월에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살펴보면, 아파트 분양가 상승억제와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가전제품·위생용품·가구제품 등에 대해 플러스옵션제를 도입하겠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대상품목에 대한 특성 등 깊이 있는 검토가 없이 시행될 경우에는 자칫 해당품목의 산업활성화를 전제하거나 오히려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즉, 시장수요를 왜곡시키는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다.

이에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부터 꼭 반영되어야 하는 시스템에어컨과 홈네트워크제품에 대해서는 분양가 산정대상품목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교부에 건의하였다. 2004년 1월 14일, 건교부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증개정령』을 발표하였고, 이 중 제8조 6항에서는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단계에 반영되는 품목은 분양가 산정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본회, 『건분주택 건축기준』제정에 따른 전자업계 애로건의

2003년 12월말, 건설교통부에서 언론사에 배포한 『건분주택 건축기준』제정에 대한 보도자료에서는 빌트인 가전제품을 건분주택에서의 진열을 불허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플러스옵션제의 도입으로 아파트 분양가는 인하될 수 있어 정부정책에 부합되고, 소비자들 또한 플러스 옵션제에 따라 빌트인 가전제품의 선택적인 구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빌트인 가전제품의 특성상 소비자와의 유일한 유통경로가 건분주택(모델하우스) 이므로, 건분주택 내에 빌트인 가전제품을 진열되지 않으면 입주자가 실물을 보고 선택할 수가 없어 이는 정부의 플러스옵션제 도입을 무의미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기업규제로 작용하여 빌트인 가전산업의 쇠퇴를 초래할 수가 있다.

이에 우리 전자업계에서는 빌트인 가전제품의 진열을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고, 정부에서는 현행처럼 건분주택 내 빌트인 가전제품의 진열을 허용하되, 표지판(가로 25cm × 세로 15cm) 안팎의 표지판을 붙여 별도계약 대상이라는 사실을 소비자들 알 수 있도록 하였다. ●